

조선시대 백관복을 응용한 복식 디자인 -무관의 복식을 중심으로-

김 홍 진 · 송 미 령

동덕여자대학교 패션전문대학원 패션학과 어패럴전공

2000년이라는 유구한 우리의 복식문화는 서양복식의 출현으로 불과 100년 만에 정복당해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다시 국제화 시대의 도래로 한국적이면서 전통적인 요소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의 디자이너들도 코리아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세계시장으로 속속 뛰어 들고 있다. 복식전반에서 "전통과 현대의 만남"은 국제무대에서도 주목 받고 있으며 전통적 요소와 소재개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개발과 연구 또한 시급하다.

조선시대 무관의 복식은 예술과 미적인 시각적 관점에서 보면 가장 남성적이고 파워 넘치는 의상으로서의 표현이며 엄숙하고 근엄한 장수의 이미지와 유교적 정신을 표출한다.

이에 본 연구는 서양복식의 출현으로 단절된 백관복을 현대의 최첨단 신소재와 결합하여 여성 외투를 중심으로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하여 국제화 시대의 한국적이며 현대적인 밀리터리 룩을 창출해 내려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무관복식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능력 있고 전투적이며 능동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최첨단 소재의 개발과 사용으로 과거의 선조들의 전투복이 그랬듯이 최대한의 활동성과 편안함을 추구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에 있어서는 문헌기록을 참고로 조선시대의 무관복식의 종류와 유형을 찾아내고 시대적 특징과 발달, 쇠퇴를 알아내기 위하여 유물고찰과 참고자료들을 수집하였다. 그 외 현대복식에 나타난 밀리터리 룩을 자료사진으로 표집된 작품들을 통하여 살펴 본다.

연구방법은 위의 역사 배경을 토대로 유물에 나타난 무관의 복식에 다양한 특색을 여성의 외투에 적용하여 총 5점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상의 연구과정을 토대로 얻어진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의 복식은 명에서 건너와 건국초기에는 중국색을 많이 띄었으나 양란을 거치면서 한국화하여 우리민족만의 여유롭고 풍성한 실루엣을 이루었다. 이러한 실루엣은 남성적인 관복의 이미지에서 동시에 여성적인 이미지를 들출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군복의 역사를 통하여 상고시대 이래 군복의 소재의 발전이 과학의 발달과 같이 해왔

으며, 동시에 가장 실용적인 디자인임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디자인에 현대의 다양한 소재와 기법을 접목시킴으로서 풍부한 소재감과 재질감을 살렸다.

셋째, 전통관복에 현대의 밀리터리 룩의 확대, 생략, 변형, 디테일의 방법 등을 적용하여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디자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의 무관의 관복을 현대복식에 도입함에 있어 전통미를 살린 실용적인 복식 디자인의 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전통미의 세계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관복을 응용한 의상디자인은 현대복식에 있어서 단순한 전통문양의 답습으로 이어지는 수동적 재현이 아니라 다양한 능동적 표현으로 국제화 시대에 부응되는 생명력 있는 복식디자인의 창조이다.

이러한 한국적 밀리터리 룩의 개발시도는 한국적 이미지의 다양화에 일조할 것이며 나아가 우리나라 패션이 국제시장 진출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한국적 디자인의 다양성 확보는 결과적으로 한국패션디자인의 국제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복식을 현대적 디자인으로 재창출함에 있어 전통적인 복식에 가깝게 디자인하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 여겨진다. 따라서 전통의 느낌을 살리되 소재와 실루엣을 현대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복식 디자인을 창출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패션산업의 세계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무관의 관복을 응용함에 있어 디자인을 현대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의 창출과 더불어 첨단소재의 사용과 전통적인 실루엣을 조화시키는 연구가 이어지길 바란다.